

“두나라의 언어·문화를 안다는건 좋은 장점입니다”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소양초 최지연·전북중 왕정 대상 수상

“중국에서 온지 2년 밖에 안 되었지만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 한국은 저의 제2의 조국입니다.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안다는 것은 국제 무역이라는 일을 할 때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지난 16일 열린 제6회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중등부 대상을 받은 전북중학교 3학년 왕정 학생의 당찬 포부다.

전북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전북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소양초 4학년 최지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전북중 3학년 왕정 학생이 중등부 대상을 받았다.

초등부 금상은 군산구암초 김지은, 흥덕초 이해원, 은상은 삼계초 조인현, 부안동초 노대현, 이리동초 음민호, 동상은 변산초 강윤진, 김제감산초 이준명, 반암초 이기연, 동양초 박린, 동양초 박수아, 전주금영초 알비, 보절초 유태희 학생이 수상했다.

중등부 금상은 순창북중 강동호, 은상은 정읍여중 안미진, 고창여고 박원희, 동상은 익산여안중 이여재, 운봉중 김은아, 봉남중 뷔티푸영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 대상 초등 1명과 중등 1명, 소수언어



전북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전북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중 지역 예선을 통과한 학생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우수자 1명은 10월 28일 미래에셋대우 과천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한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 및 이중언어(부모 모국어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한 언어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

해 매년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자유 주제, 중등은 진로 관련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 모국어 각 3분씩 6분 동안 한국어를 먼저 발표한 후 동일한 내용을 부모 모국어로 발표한다. /정혜는 기자

무주농악보존회,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서 장려상 수상

지난 4월에 창단된 무주농악보존회(회장 최왕진)가 지난 16일 완주군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6회 전북 시군농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회가 주최한 것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농악단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무주농악단은 13번째로 출연해 흥겹고 전통있는 무주농악을 선보여 관중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왕진 회장은 “보존회원 모두가 반딧불축제와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 3개월여 동안 땀을 흘리며 연습한 결실을 제대로 안은 것 같아 기쁘다”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대상에 도전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농악보존회는 무주농악의 뿌리를 찾아 올곧게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올해 반딧불축제에서도 세 차례에 걸친 특별공연을 펼치면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무주농악만이 가진 멋진 소리를 선사해 호응을 얻었다. 회원은 무주군민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성태일 단장이 지도를 맡고 있다. /우주=전문선 기자

완산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완산경찰서는 18일 완산경찰서 경목위원회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팀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추천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해 총 10명에게 장학금 각각 20만원을 전달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역할에 앞장서는 경목회에 감사드리다”며 “완산경찰서는 시민과 협력하고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치안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고창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 진행

고창소방서(서장 안준식)는 18일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죽도마을에서 안준식 고창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직원 등 9명이 참석한 소방사각지역인 도서지역 화재예방에 관한 현장방문과 화재없는 안전마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마을 공동 소화기함, 구급함 기증▲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명예 소방관 위촉 행사▲유관기관과 합동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안준식 서장은 “삼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화재예방에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상 순창공장, 순창지역 아동들에 놀이공원체험 기회 제공

대상(주)순창공장(공장장 임병용)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 지역본부장 소동하)은 순창지역 아동 50여명, 순창고 네이케이 봉사단 10명과 함께 최근 광주에 위치한 패밀리 랜드를 방문하여 놀이공원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상(주)순창공장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순창 지역 내 초등학교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을 재미있는 놀이기구도 타고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김서우(가명, 초4)아동은 놀이동산에 와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서 너무 즐거웠고 몸도 튼튼해진 것 같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주)순창공장에서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지난 14년 동안 순창군 내 어린이를 모집해 청정원 어린이회 운영과 각종 지원에 나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청년회의소, 희망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실시

임실청년회의소(회장 임정일)가 주관하는 '제3회 희망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이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임실군 신덕면 신덕리 최봉환 학생의 가정에서 실시됐다.

전북지구청년회의소와 임실경찰서, 전북도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임정일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부인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붕과 보일러, 벽지, 장판 등 교체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임정일 회장은 “이번 희망의 집 고쳐주기 행사는 관내 불우학생을 선발해 이루어졌다”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과 부인회원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사 010-98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축! 전주매일 창간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장수물.com

NAVER 장수물

장수물 MALL